
2024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중국 : 창사시, 리링시 일대]

2024년도 11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COUNCIL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중국 창사시, 리링시 일대

2. 출장목적

- 중국 후난성 창사시, 리링시의 주요 기관·시설을 방문하여 상권 활성화 등 정책 사례를 학습하고 리링시청·시의회 답방을 통해 우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 항일 운동 유적지 시찰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여 의원으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

3. 출장기간 : 2024. 10. 17.(목) ~ 10. 23.(수) / 6박 7일

4. 보고서 작성자 : 김양희 의장, 박경희 부의장,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 이종석 위원

5. 출장자 인적사항

연번	소속	직위	성명
1	-	의장	김양희
2	-	부의장	박경희
3	재정건설 위원회	위원	서호성
4		위원	이종석
5	의회 사무국	비서실장	하만천
6		정책지원관	송정아
7			최윤정
8		주무관	이명욱

목 차

1. 서론	1
1) 출장 개요	1
2) 주요 일정	2
3) 출장단 임무	4
2. 방문국가 현황	5
3. 방문지별 세부 내용 및 출장 사진	8
1) 창사 기획전시관	8
2) 창사시 인민대표 상임위원회 간담회	11
5) 창사 대한민국 임시정부·김구 박물관	14
4) 차오종 거리	16
5) 카이푸구 야간경제 친수공간(상 강 일대)	19
6) 리링시 인민정부&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간담회	21
7) 리링(푸링) 도자 박물관	27
8) 폭죽 업체 - 케이푸 파이어웍스	29
9) 도자기 업체 - 도윤회	31
10) 도자기 업체 - 화렌	34
11) 거리 사진 등	36
4. 의원별 소감	38
1) 김양희 의장	38
2) 박경희 부의장	42
3) 서호성 의원	47
4) 이종석 의원	51

1 서론

○ 출장 개요

기간	2024. 10. 17.(목) ~ 10. 23.(수) / 6박 7일						
방문 인원	총 8명 (의원 4명, 직원 4명)						
방문지	중국 창사시, 리링시 일대						
항공 스케줄	날짜	출발		도착		소요 시간	편명
		시간	도시	시간	도시		
	10.17.(목)	08:50	인천	11:20	창사	3:30	KE819
	10.23.(수)	12:30	창사	16:30	인천	3:30	KE820
기관 방문	○ 창사시 - 창사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간담회 ▶ 참석: 왕위후이 부회장, 류샤오형 주임 외 다수 - 창사 기획전시관 - 창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박물관 ○ 리링시 - 리링시 인민정부 및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간담회 ▶ 참석: 유신화 인민정부 시장, 윤세준 인민정부 부시장, 하샤오링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주임 외 다수 - 리링(푸링) 도자 박물관 - 폭죽 업체 - 케이푸 파이어웍스(KEFU FIREWORKS) - 도자기 업체 - 도윤회(陶潤會) - 도자기 업체 - 화렌(HUALIAN)						
현장 시찰	○ 창사시 - 차오종 거리 - 카이푸구 야간경제 친수공간(상 강 일대)						

○ 주요 일정

일자	지역	일정	이동 수단
1일차 10.17.(목)	인천 창사	■ 인천 → 창사	항공
		■ 창사 [기관 방문] - 창사 기획전시관 - 창사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간담회 ▶ 참석: 왕위후이 부회장, 뤼샤오형 주임, 그 외 다수	전용 차량
2일차 10.18.(금)	창사	■ 창사 [기관 방문] - 창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박물관	전용 차량
		[현장 시찰] - 차오종 거리 - 카이푸구 야간경제 친수공간(샹 강 일대)	
3~4일차 10.19.(금) ~10.20.(토)	창사 리링	■ 자유일정 및 이동	전용 차량

일자	지역	일정	이동 수단
5일차 10.21.(월)	리링	- 리링 [기관 방문] - 리링시 인민정부 및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간담회 ▶ 참석: 류신화 인민정부 시장 윤세준 인민정부 부시장 허샤오링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의장 그외 다수	전용 차량
6일차 10.22.(화)	리링 창사	[기관 방문] - 리링(푸링) 도자 박물관 [폭죽 업체] 케이푸 파이어웍스 (KEFU FIREWORKS) [도자기 업체] 도윤회(陶潤會) [도자기 업체] 화렌(HUALIAN)	전용 차량
7일차 10.23.(수)	창사 인천	창사 → 인천	항공

○ 출장단 임무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업무분장
1	-	의장	김양희	▪ 중국 창사시, 리링시 자료 수집
2	-	부의장	박경희	▪ 창사시 상권 활성화 자료 수집
3	재정건설 위원회	의원	서호성	▪ 창사시 항일 운동 자료 수집
4		의원	이종석	▪ 리링시청 및 리링시의회 간담회 준비, 공무국외출장 총괄
5	의회 사무국	비서실장	하만천	▪ 공무국외출장 일정 및 예산 조정 총괄
6		정책지원관	송정아	▪ 기관 섭외, 숙소, 교통편 등 일정 준비 등
7		정책지원관	최윤정	▪ 자료준비,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8		주무관	이명욱	▪ 자료준비, 사진 촬영 지원 등

2 방문국가 현황

1) 일반 현황

국명	▪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건국일	▪ 1949. 10. 1.(국경일)
수도	▪ 베이징(북경)
국기	▪ 오성홍기 - 유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직후인 1949. 9. 30. 인민정치협상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채택 - 의미: 革命(적색)의 기치 하에 중국공산당(큰별)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小부르주아, 民族부르주아 계급(4개의 작은 별) 등 모든 중국 인민이 단결하자는 의미
국가 휘장	▪ 중앙의 천안문은 중국인민의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민족정신을 상징 ▪ 천안문 아래 둥근 황금색 톱니바퀴와 주위의 곡식은 노동자 계급과 농민을 상징 ▪ 국기와 마찬가지로, 황색의 5성 중 가장 큰 별과 주위 네 개의 별은 각각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을 대표하며, 공산당의 지도하에 조화·단결하는 인민을 상징
인구	▪ 약 13억 2,517만 8,782명 / 세계 2위(2024년 기준) → 한국의 약 28배
민족	▪ 한족(漢族, 91.1%) 및 55개 소수민족(8.9%) - 조선족: 170만명(소수민족의 1.4%)
표준어	▪ 보통화(한어(漢語))
면적	▪ 9,596,960km ² / 세계 4위 → 한국의 약 95배

2) 정치 외교

정 치 체 제	▪ 노농(勞農)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
권 력 형 태	▪ 실질적 공산당 일당제 (형식상 8개 정당 존재)
주요지도자	▪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겸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 시진핑(習近平, Xi Jinping)
행 정 구 역	▪ 22개 성 - 화북구(河北省, 山西省) - 서북구(陝西省, 甘肅省, 青海省) - 동북구(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 - 화동구(江蘇省, 浙江省, 安徽省, 江西省, 福建省, 山東省) - 중남구(河南省, 湖北省, 湖南省, 廣東省, 海南省) - 서남구(四川省, 雲南省, 貴州省) ▪ 4개 직할시 : 베이징, 상하이, 충칭, 톈진 ▪ 5개 자치구 : 네이멍구, 광시좡족, 시짱(티베트), 닝샤후이족, 신장위구르자치구 ▪ 2개 특별행정구 : 홍콩, 마카오 ※ 중국은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
유 엔 가 입	▪ 1971. 10월(안보리 상임이사국)
한 중 관 계	▪ 1992. 8. 24. 수교 / 1992. 8. 27. 한국대사관 개설
중 국 인 방한 추이	▪ 방한 중국인은 수교 이후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하였으나, 2016년 다시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인 826만여 명을 기록하였음. ▪ 2020년 들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한 중국인이 크게 감소(-88.2%)했으나, 2022년 6월 방한 관광 비자 등 재개 및 2023년 방역 조치 해제 후 항공편 증가 등으로 양국 간 인적교류가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음.

3) 경제 수준

국내총생산 (G D P)	\$17조 9,631억 / 세계 2위(2022년 기준)
1인당GDP	\$1만 2,720 / 세계 58위(2022년 기준)
교역규모	- 수출 \$99억 1,174만, 수입 \$111억 6,754만 ※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대상국, 한국은 중국의 2위 무역대상국
수출상품	1) 전자집적회로, 2) 환식탄화수소, 3)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4) 산화금속산염, 5) 전자기기 부품 등의 품목이 전체 수출의 약 44.7% 차지
수입상품	1) 전자집적회로, 2) 히드라진과 그 무기염, 3) 자동자료처리기계, 4) 전화기, 5) 축전지 등 5대 품목이 전체 수입의 약 31.2% 차지
산업구조	3차 사업(54.5%), 2차 산업(37.8%), 1차 산업(7.7%)
기업 진출현황	2023. 9월 말 누계 기준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은 28,633개(출처: 한국수출입은행)

4) 국가 조직

입법부	전국 인민대표대회(약 3천 명)
행정부	국무원(중앙인민정부) 및 각급 인민정부
사법부	4급 2심제(기층-중급-고급-최고 인민법원)
검찰	최고인민검찰원, 각급 인민검찰원, 전문인민검찰원
감찰	국가감찰위원회

3 방문지별 세부 내용 및 출장사진

1) 창사 기획전시관

소재지	▪ 후난성 창사시 개복구 상강북로 창사빈강문화원 내
연락처	▪ 86-0731-8289-2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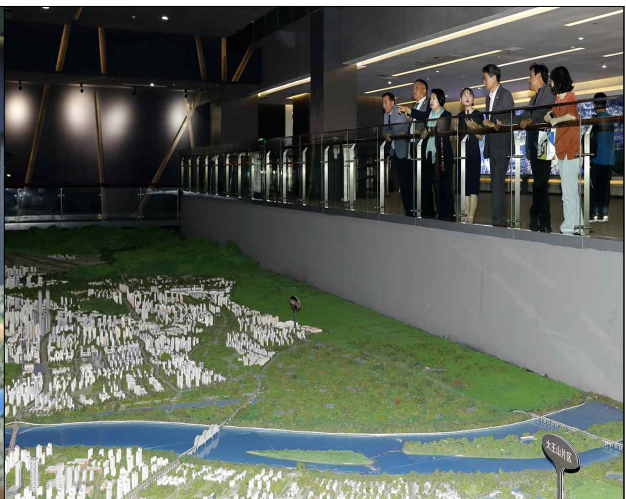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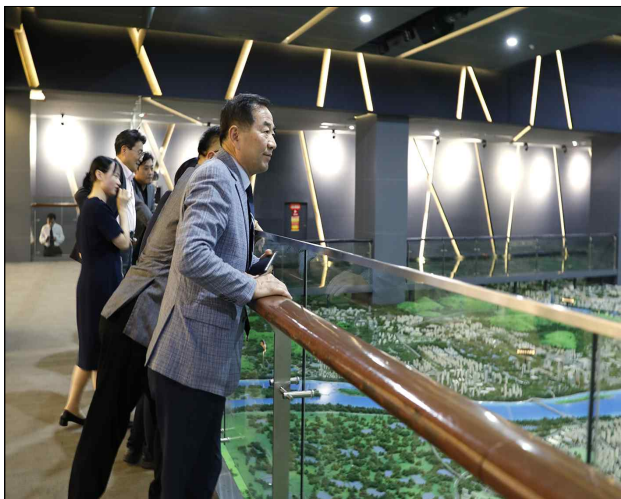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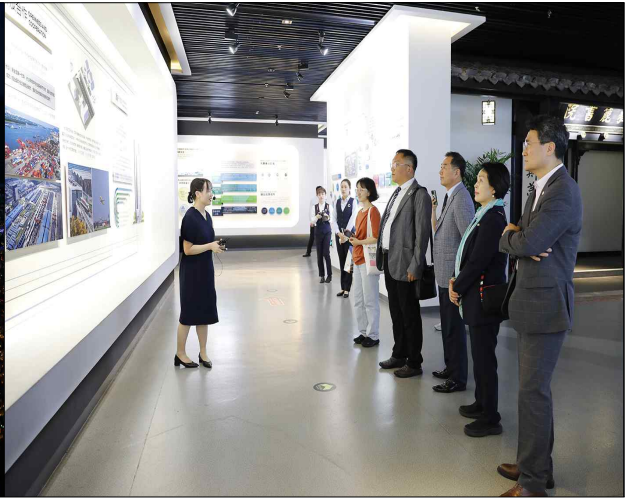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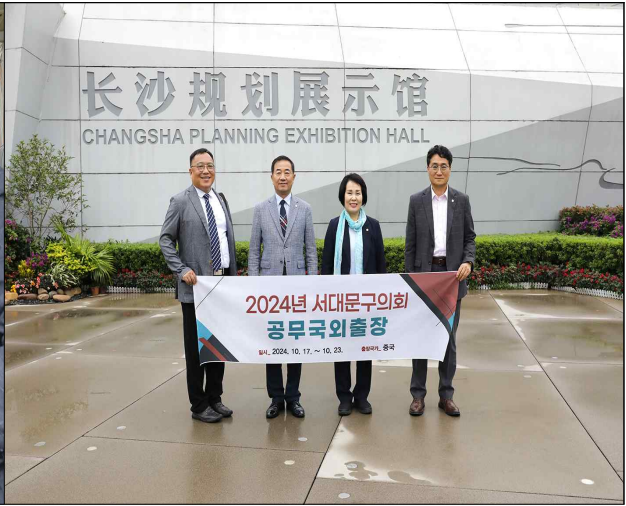
- 방문시간 : 2024. 10. 17.(목) 15:00~16:00
- 안내자 : 창사 기획전시관 해설사

○ 기관 소개

- 창사 기획전시관은 창사 빈강 문화원에 위치하며, 창사의 자연 자원 및 도시 기획을 전시하고 과학 지식 보급 및 시민 참여 등 여러 기능을 갖추고 있음
- 2015년 10월 1일에 문을 열었고, 전체 건축 면적은 9,255㎡임
- “산, 물, 섬, 성”을 주요 테마로 하고 있으며 총 4부분(▲창사의 개관, 아름다운 창사, ▲역사 속의 창사, 옛 창사를 떠올리기, ▲기획 장량, 신 창사를 상상하기, ▲개성과 환락이 넘치는 도시, 2050)의 전시관이 “우리 창사, 우리 집”을 주제로 구성됨
- 전시관에는 전경식 풍경 체험 회랑, “도시 형성 역사”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전시실, 도시 전체 기획 모형쇼, “아름다운 창사” 인터랙티브 시네마, 디지털 샌드박스, 3D 시네마, VR 자가 여행 체험, 세계 달인 등 특색있는 전시 코너들이 선진적인 음성, 조명, AI 기술을 사용하여 창사의 자연, 문화 및 도시의 아름다움을 소개함

○ 창사시 소개

- 창사시 동쪽에는 국제공항이 있고, 2014년 개통한 고속철도는 창사시의 빠른 성장을 가져왔음
- 2023년 기준 상주인구 1,051만 명, 면적 11,819km²로 중국 내 경제적으로 진보된 20개 도시 중 하나임
- 5개의 국가급 산업단지와 2개의 소급 산업단지가 있음. 첨단 제조업, 과학기술 혁신, 내륙 개혁개방 등 3대 분야 선진화와 더불어, 중부 지역과 장강 경제벨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창사의 평균 집값은 m²당 만 위안(약 200만 원) 정도임. 중국 대도시 중에는 낮은 편에 속하며 이에 반해 의료 서비스나 교육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이에 따라 매년 10~20만 명 정도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1만 명이 증가함
- 과거에는 대기 오염이 심했지만, 친환경 버스로 바꾸는 등 정책적 노력으로 최근에는 대기가 맑아짐
- 중국 중부지역 핵심 도시이자 3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도시, 관광도시임. 2017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3위 도시로 선정되었고, 작년 기준 관광객 수가 1억 9천만 명을 넘어섰음
- 창사시에는 후난TV 방송국이 있어 유명 연예인이 많이 방문함. 후난TV 방송국은 한국 연예인들도 중국에 오면 반드시 거쳐 가는 장소임
- 창사시를 관통하는 양 강 중앙에는 섬이 있는데, 굴이 많이 나서 굴섬이라고 불림. 굴 섬 남쪽 꼬트머리에는 청년 시절의 모택동 주석 두상이 설치되어 있음
- 창사시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으로는 취두부가 있음. 두부를 소금에 절여서 발효한 음식인데, 냄새가 강하여 선호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고소하고 맛있음



2) 창사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간담회

소재지	▪ 후난성 창사시 카이푸구 푸용베이로 성쓰로
연락처	▪ 86-731-8455-8237
사이트	▪ http://www.kaifu.gov.cn/

- 회의시간 : 2024. 10. 17.(목) 16:30~18:00
- 사 회 자 : 뤼샤오형 (창사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주임)
- 회의순서
 -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소개 및 인사 말씀 : 왕위후이 (창사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부회장)
 - 서대문구의회 소개 및 인사 말씀 : 김양희 (서대문구의회 의장)
 - 참석 소감 발언 : 박경희 (서대문구의회 부의장), 서호성 (서대문구의회 의원), 이종석 (서대문구의회 의원)
 - 교류의 시간 : 다 같이
- 창사시 관계자 참석자 : 약 10명
 - 왕위후이 (창사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부회장)
 - 뤼샤오형 (창사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주임) 외 다수

○ 인사 말씀(창사시 왕위후이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부회장)

- 창사시의 자랑을 4글자로 표현하자면 “산, 물, 섬, 성”입니다. 서대문구의회 대표단의 창사시 방문일정을 잘 모르겠지만 창사시의 자랑 4가지를 꼭 경험하고 가길 바랍니다.
- 창사시는 대구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올해 8월에는 구미

시에 방문했습니다. 구미시의회, 구미시청, 전자 산업단지를 모두 방문했는데, 해당 자리에서 구미시와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 또한, 서울시를 거쳐서 구미시를 방문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울시에 대한 인상이 강하게 남았습니다.
- 따뜻함과 친근감이 있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를 방문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를 기대합니다. 가까운 시일에 다시 한번 한국에 방문하고 싶고 서대문구에도 방문하고 싶습니다.

○ 인사 말씀(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

-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창사시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자원이 있는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첫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추후 서대문구의회에 꼭 방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창사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참석 소감

- (박경희 부의장)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기대합니다.
- (서호성 의원) 서대문구는 9개의 대학이 소재한 곳으로 진취적인 청년 사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사시의 청년 창업가들과 서대문구 청년 사업가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 (이종석 의원) 10년 전 창사시에 개인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다시 방문하니 창사시가 눈부신 발전을 한 것이 느껴집니다. 마치 고향이 발전한 것처럼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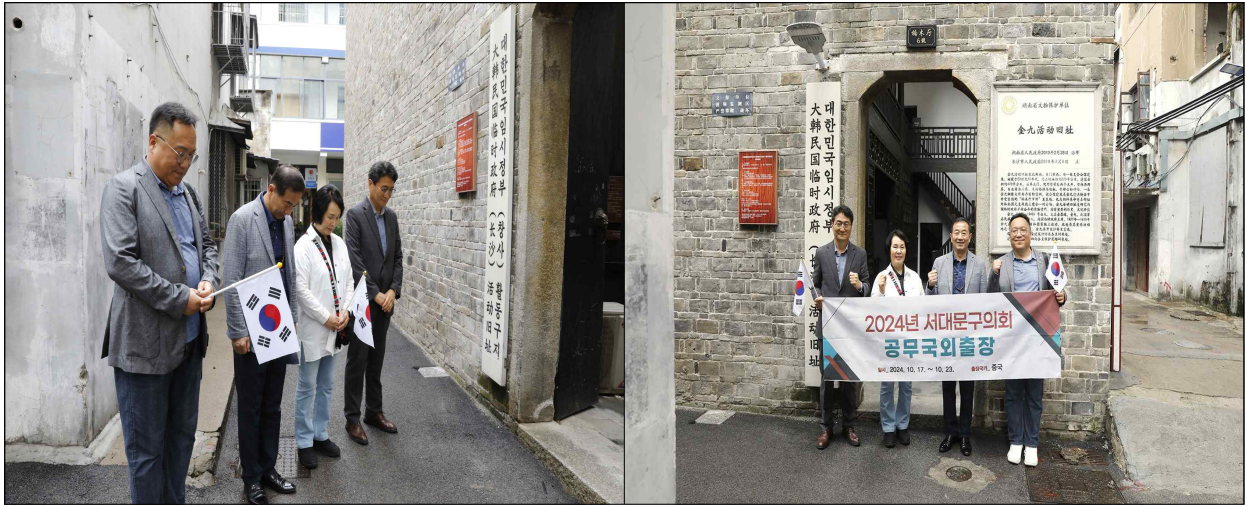
3)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박물관

소재지	▪ 후난성 창사시 카이푸구 사위안베이리 2호
연락처	▪ 86-731-8518-0087
사이트	▪ https://shorturl.at/hLfFK

- 방문시간 : 2024. 10. 18.(금) 14:00~14:30
- 안 내 자 : 박물관 해설사

○ 기관 소개

- 1937년 12월 중일전쟁에서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난징이 함락됨. 1937년 11월 말부터 전장시와 난징시에서 활동하던 임시정부 구성원들은 난징을 빠져나와 후난성 창사시로 근거지를 옮겼음
- 당시 후난성 정부가 공관 건물을 대여해주어 임시정부청사를 마련할 수 있었음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했던 한국국민당의 이사장 김구의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유명함
- 2007년 창사시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에 복원하여 정식 개관함
- 주변 지역이 문화의 거리로 개발되면서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잠시 휴관했다가 최근 재개관함
- 김구 선생님의 흉상과 휘호,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이 사용하였던 집무실 및 여러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음



4) 차오종 거리

소재지	▪ 후난성 창사시 카우푸 차오종제
연락처	▪ 86-731-8455-8237
사이트	▪ https://shorturl.at/WNagx

- 방문시간 : 2024. 10. 18.(금) 14:30~16:00
- 안 내 자 : 창사시 카이푸구 대외협력 담당자

○ 현지 소개

- 차오종 거리는 2018년 6월에 본격적인 건설을 시작하여 '전통' 테마를 가진 북쪽 거리는 2019년 상반기, '역사' 테마를 가진 남쪽 거리는 2019년 하반기에 각각 완공됨
- 거리를 조성할 때 서로 막혀 있던 거리와 골목을 연결하고 시민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을 조성했으며, 일부 거리는 차량을 통제하거나 속도를 통제하여 걷기 편한 거리가 되었음
- 차오종 거리 역사·문화 구역의 동남쪽에는 후난성 최초의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하였고, 창사시는 창업 희망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창업을 유도함
- 약 8천㎡ 공간에서 6백여 명의 청년이 30여 개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음. 온라인 홍보를 통해 현재까지 약 1,000개의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탄생시켰음
- 2019년 말에는 차오종 거리 역사·문화 구역에 대한 8가지 분야(산업, 그래픽, 패션, 건축, 엔지니어링, 영상·애니메이션, 게임, 전문)의 설계를 지원함

- 문화 창조 기업의 조건을 충족하면 각종 혜택을 제공함. ▲임대 면적 중 300㎡에 대해 공사 기간 포함 총 2년간의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3년 후 구역 재정의 기여분이 50만 위안(약 1억 원) 이상이고 연간 10% 이상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여분의 50%를 반환해 줌.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대출금리의 50%(기업당 할인 총액은 20만 위안(약 4천만 원) 이내를 할인해주고 ▲유명 인사나 고급인재가 일하는 기업은 연간 구역 재정 기여분이 30만 위안(약 6천만 원) 이상이면 재정 기여분 전액을 반환해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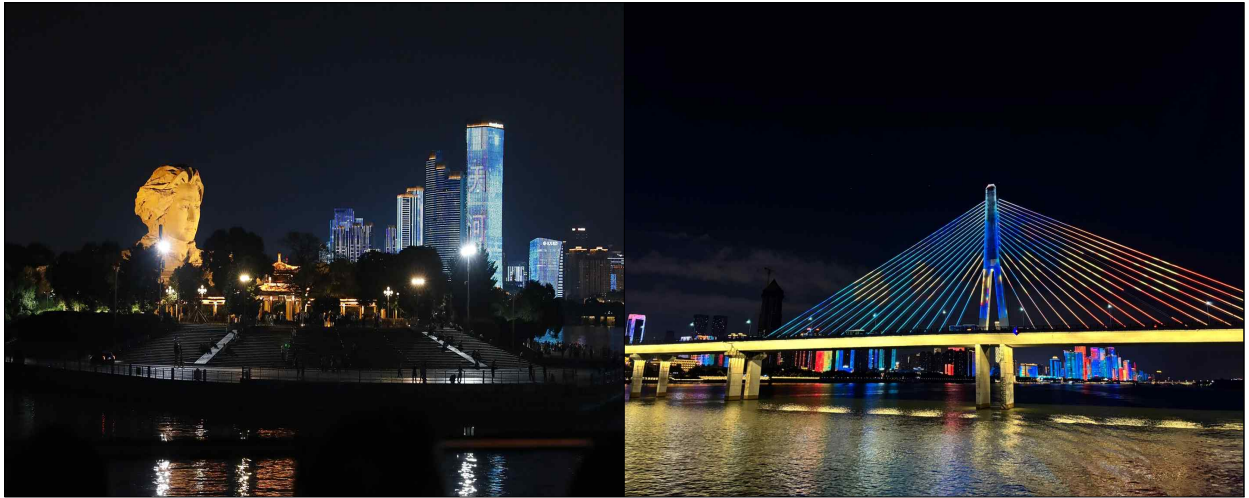
5) 카이푸구 야간경제 친수공간(상 강 일대)

소재지	▪ 후난성 창사시 카이푸구 일대 및 굴 섬
연락처	▪ 86-731-8455-8237
사이트	▪ http://www.kaifu.gov.cn/

- 방문시간 : 2024. 10. 18.(금) 19:00~20:30
- 안 내 자 : 황진 (여행사 가이드)

○ 현지 소개

- “야간경제”란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쇼핑, 식사, 오락, 레저 등 서비스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상업 활동을 의미함
- 창사시 카이푸구 일대는 야간경제가 소비를 촉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 도시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총 11개의 특색 있는 상업 거리, 9개의 지역 상권 센터가 야간 운영 중임
- 굴 섬은 창사시를 가로지르는 상 강 중앙에 있으며 길이 약 5km, 폭 약 50~150m로 상 강에서 가장 큰 섬임.
- 굴 섬의 섬 남쪽 끄트머리에는 청년 모택동 조각상(높이 32m, 길이 83m, 넓이 41m)이 있는데, 청년 시절 모택동은 이곳에서 “광활한 대 지에게 묻는다. 누가 운명을 다스릴 수 있는가.”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짐
- 굴 섬에서 바라보는 야경(수백 개의 빌딩에서 표출되는 미디어 파사드)은 카이푸구 야간경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음. “미디어 파사드”란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설치하여 디지털 미디어를 표출하는 시공간 예술의 한 분야를 말함



6) 리링시 인민정부 및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간담회

소재지	▪ 후난성 리링시 좌권로 59
연락처	▪ 86-731-2335-6789
사이트	▪ http://www.liling.gov.cn

- 회의시간 : 2024. 10. 21.(월) 14:00~17:00
- 사 회 자 : 윤세준 (리링시 인민정부 부시장)
- 회의순서
 - 서대문구의회 방문 취지 발언 : 김양희 (서대문구의회 의장)
 - 리링시 소개 : 윤세준 (리링시 인민정부 부시장)
 - 리링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소개 : 하샤오링 (리링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 참석 소감 발언 : 박경희 (서대문구의회 부의장), 서호성 (서대문구의회 의원), 이종석 (서대문구의회 의원)
 - 마무리 발언 : 유신화 (리링시위원회 부서기, 리링시 인민정부 시장), 김양희 (서대문구의회 의장)
 - 질의응답 및 교류의 시간 : 다 같이
- 리링시 관계자 참석자 : 약 10명
 - 유신화 (리링시위원회 부서기, 리링시 인민정부 시장)
 - 하샤오링 (리링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 유묘 (리링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 윤세준 (리링시 인민정부 부시장)
 - 리링시 인민대표대회 사무국, 리링시정부 사무국, 리링시당위원회 외교사무국, 리링시 재정국, 리링시 발전개혁국, 리링시 문화관광체육국, 리링시 상무국, 리링시 농업농촌국

○ 기관 소개(리링시 윤세준 인민정부 부시장)

- 리링시(예릉시, 醴陵市)는 후난성 주거우시에 위치하며 1985년 현을 폐지하고 시를 설립하여, 현재 4개의 가도, 18개 진, 8개의 향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 리링시 면적은 2,157km²이고 총인구는 106만 명에 이르며 115개의 명승지가 산재해 있고 산, 물, 섬,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여 살기 좋고 생태적인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중국 100대 현 중 하나입니다.
- 또한 리링시는 깊은 문화유산을 지닌 도시로 폭죽과 도자기 산업은 수천 년에 걸쳐 발달하여 중국에서 “도자기 수도”, “폭죽의 수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 리링시의 도자기는 품목 4천여 개와 국가 특허 1,5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력용 도자기는 세계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생활용 도자기는 세계시장의 약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독창적으로 개발한 유약 색채 도자기는 파나마 만국 박람회에서 1915년 부상을 수상하며 동양도자기의 최고봉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 도자기 행사 시즌에는 하루 2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기도 하는데 특히, 미세하게 흠집이 난 도자기 더미에서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는 “도자기 줍기 이벤트”는 가장 인기 있는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 리링시의 폭죽은 14개의 종류로 나누고 품목 4천 개에 달하며 연간 생산 규모는 2천억 위안(40조 원)에 달합니다. 최근 몇 년간 5천여 대의 도자기 및 폭죽 자동화 생산 설비가 건설되어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 리링시의 도자기와 폭죽 등의 산업은 자동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고 유리, 의료, 전자, 정보 등 신형 산업도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 2023년 리링시의 GDP는 889억 7천만 위안(약 18조 원)에 달하여 전년 대비 6.4% 증가했고, 지방 세수는 5.7% 증가했으며 고정 자산 투자와 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의 성장률도 중국 내 상위권에 속합니다.

○ **기관 소개(리링시 인민대표회의 하샤오링 상무위원회 주임)**

- 올해는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수립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리링시 인민대표대회는 리링시 의사 결정기관으로 300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인민대표 위원은 대부분 공산당 지도부와 군 장군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입니다.
- 현재 세계는 예측 불가능한 위협과 도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벗들이 내 안부를 묻거든 한 조각 얼음같이 맑은 마음, 옥 향아리에 있다고 전해 다오”라는 당나라 시인 왕창령의 시처럼 서대문구의회와 리링시 간의 관계가 늘 맑고 푸르게 지속되길 바랍니다.

○ **인사 말씀(리링시 유신화 인민정부 시장)**

- 존경하는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서대문구의회 방문단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 유신화 리링시 인민정부 시장 외 리링시 대표단 일동은 올해 7월 15일, 서대문구의회에 방문하여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서대문구의회에서 답방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 앞으로도 양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를 기대합니다.

○ **인사 말씀(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

- 서대문구의회를 초청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첫 만남 이후, 가까운 시일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 리링시는 도자기 산업을 비롯하여 폭죽 산업과 자동차 부품단지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방문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앞으로 서대문구와 리링시는 공통 의제를 찾아 함께 고민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의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을 기대하며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 참석 소감

- (박경희 부의장) 환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링시 곳곳을 둘러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호성 의원) 형제 같은 이웃 나라 도시에 와서 기쁩니다. 어제 묵은 호텔 건물이 도자기 모양이었는데, 역시 도자기 도시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의원을 하면서 해외로 공무국외출장을 나갈 기회가 많은데 유럽과 달리 중국은 친근감이 많이 듭니다. 국제 정세가 좋지 않아 한중관계가 어렵습니다. 서대문구의회가 작지만 큰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리링시와 서대문구의회가 서로 교류하며 함께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 (이종석 의원) 대한민국은 전쟁 이후 70여 년간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10년 전에 후난성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만에 방문해보니 중국도 눈부신 성장을 한 것이 보입니다. 양 나라가 많이 발전했는데, 성경을 보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작은 기초지자체이지만 여기서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궁극에는 한중, 양국이 더욱더 우호적인 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질의 응답

Q. 중국의 결혼 장려 및 출산 정책은 무엇인가요?

A. 결혼한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Q. 한국의 결혼 장려 및 출산 정책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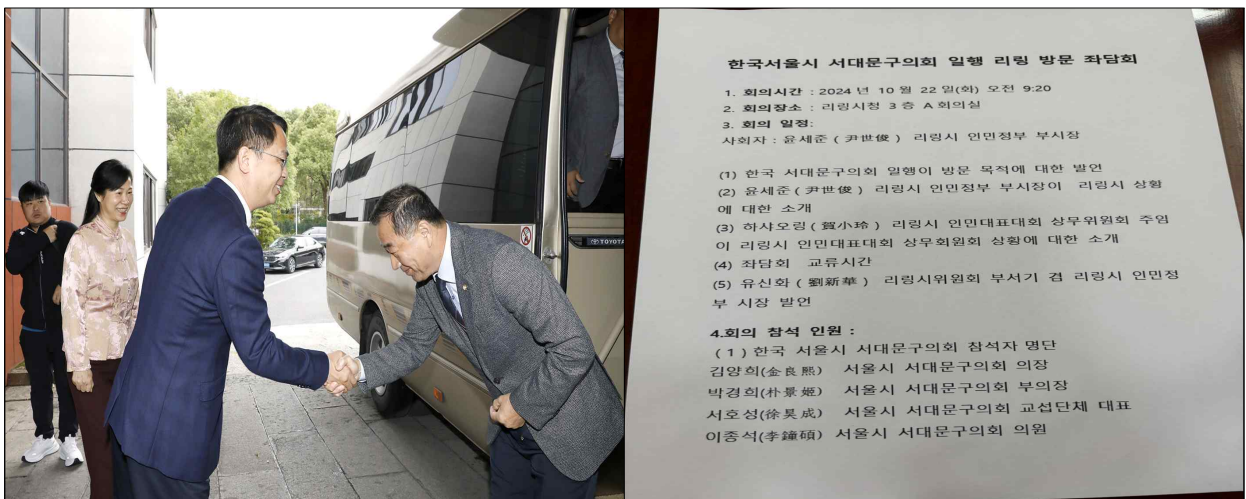
A.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결혼한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또한 출산 시 현금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액은 다릅니다.

Q. 중국은 10년 전보다 아파트가 많아졌나요?

A. 리링시가 발전하면서 아파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개인이 아파트를 사면 70년간 매매, 증여 등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한국의 아파트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여러 정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분양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20평대가 국민평형으로 분류됩니다.





7) 리링(푸링) 도자 박물관

소재지	▪ 후난성 리링시 동정가 33
사이트	▪ http://www.liling.gov.cn/c26244/20240425/i2190539.html

- 방문시간 : 2024. 10. 22.(화) 10:00~11:00
- 안 내 자 : 박물관 해설사, 윤세준 리링시 인민정부 부시장

○ 기관 소개

- 오색 도자 특화산업 타운의 핵심 구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축면적 16,598㎡, 기본진열(채색도자도시, 리링 자업의 길)로 리링시 도자 문화의 발전 맥락과 오색예술의 거대한 성과, 현대공업 도자의 활기를 보여줌
- 개혁개발 이후 리링시 도자기 생산은 일상용 도자기, 전기 도자기, 공예 도자기, 건축 도자기, 특수공업 도자기 등 5대 분야에서 약 4,000여 품목을 생산하였음.
- 리링의 도자기 제품은 15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되고 있으며 중국 내 중요한 도자기 생산 및 수출 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리링 도자 박물관은 석기시대부터 근현대까지 각종 유물 2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주로 화포, 서화, 석각, 화폐, 옥기, 불교 조상, 농기구류, 민예품 등 많은 문물이 있음
- 또한 중국국가 1급 문화재 16점, 2급 문화재 132점, 3급 문화재 1,366 점을 전시하고 있음



8) 폭죽 업체 - 케이푸 파이어웍스(KEFU FIREWORKS)

소재지	▪ 후난성 리링시 바이미엔탄썬 허텐쑤
연락처	▪ 86-0731-2373-7777
이메일	▪ 552349601@qq.com

- 방문시간 : 2024. 10. 22.(화) 13:00~14:00
- 안 내 자 : 폭죽업체 대표, 윤세준 리링시 인민정부 부시장

○ 업체 소개

- 본 업체는 아이 장난감으로 쓰이는 폭죽부터 불꽃쇼 행사에 쓰이는 폭죽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기업임
- 상품 포장에 인쇄된 QR코드에 접속하면 불꽃 쇼 영상을 볼 수 있음



《 불꽃 쇼 영상 캡처화면 》



9) 도자기 업체 - 도윤회(陶潤會)

소재지	▪ 후난성 리링시 카이푸구 자이황로
연락처	▪ 86-0731-2330-8338
사이트	▪ http://www.taorunhui.com/

- 방문시간 : 2024. 10. 22.(화) 14:30~15:30
- 안 내 자 : 도자기 업체 대표, 윤세준 리링시 인민정부 부시장, 리링시 문화체육국 관계자

○ 업체 소개

- 도윤회 도자기 업체는 젊은 층에게 어필하는 캐릭터 자기 등 신사업 발굴에 주력하는 청년 스타트업 도자 기업으로, 기발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통해 현대 미학을 해석하고 품질과 생명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브랜드 철학을 담고 있음
- 도윤회 생활예술센터에서는 도예·화예·고급 살롱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전시 및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장식용 자기·생활용 자기 및 도가 사상을 반영한 작품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음
- 총 20명가량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 유학을 다녀온 중국 직원도 2명 있음
- 동영상 등을 통해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고 자기가 깨지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며 부채 만들기, 물레로 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음
- 별도의 창고 공간에서는 하자가 있는 제품 또는 재고 제품을 원가 수

준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도자기 चु기 이벤트”를 상시 운영하여, 관광객이 도자기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2023년 8월 11일, 리링시에서 열리는 도자기 행사에 대한 영상인 Liling Rong Media Center의 "Free Picking Up Porcelain"이 인터넷 상에서 큰 관심을 얻었음. 영상의 조회 수는 3억 뷰를 넘겼고, 행사장에는 하루에 약 2만 명의 관광객이 몰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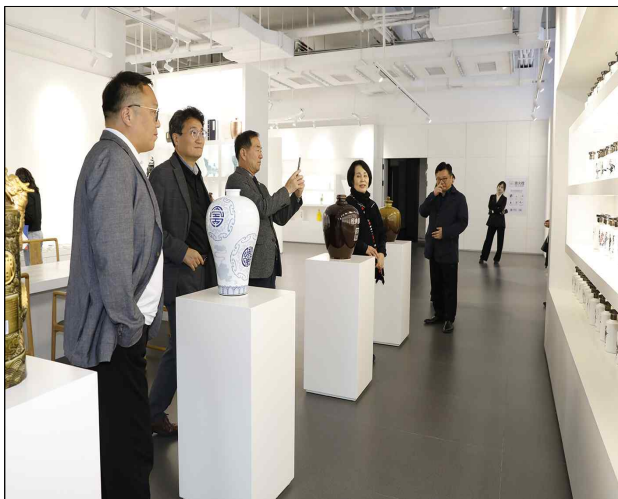
10) 도자기 업체 - 화렌(HUALIAN)

소재지	▪ 후난성 리링시 완이로 3호
연락처	▪ 86-0731-2305-2863
사이트	▪ https://www.hlceramics.net/

- 방문시간 : 2024. 10. 22.(화) 16:00~17:00
- 안 내 자 : 도자기 업체 대표, 윤세준 리링시 인민정부 부시장

○ 업체 소개

- 화렌 도자기 업체는 1994년 설립되어 3개의 상표 브랜드(Hualian, Hongguanyao, Torch)와 국가기업기술센터를 만들었고 40개 이상의 국가에 상품을 수출하는 선도 업체임.
- 국가가 인정하는 기업기술센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의 컬러 유약 석기, 고온 도자기, 특수 도자기 및 전기 도자기 개발에 종사하는 고급 인재를 보유하여 재료연구 및 산업 디자인에 강점을 가졌으며 에너지 절약, 폐기물 활용 등 새로운 공정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 특히 홍관(Hongguan) 가마는 국가 무형 문화 유산으로 "붉은 공식 가마"로 국내외에 잘 알려져 있음.
- 총 5천여 명의 직원이 있으며 24개의 발명 특허를 포함하여 총 507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일일 도자기 생산능력은 연간 1억 4천만 개를 초과함.



11) 거리 사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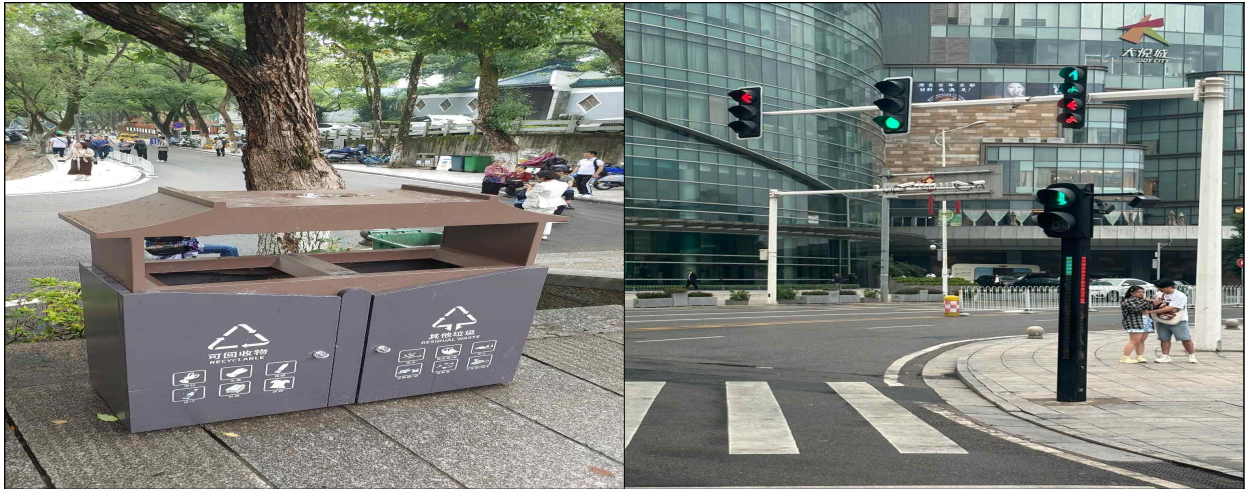
《 소방 파출소 및 소방용 오토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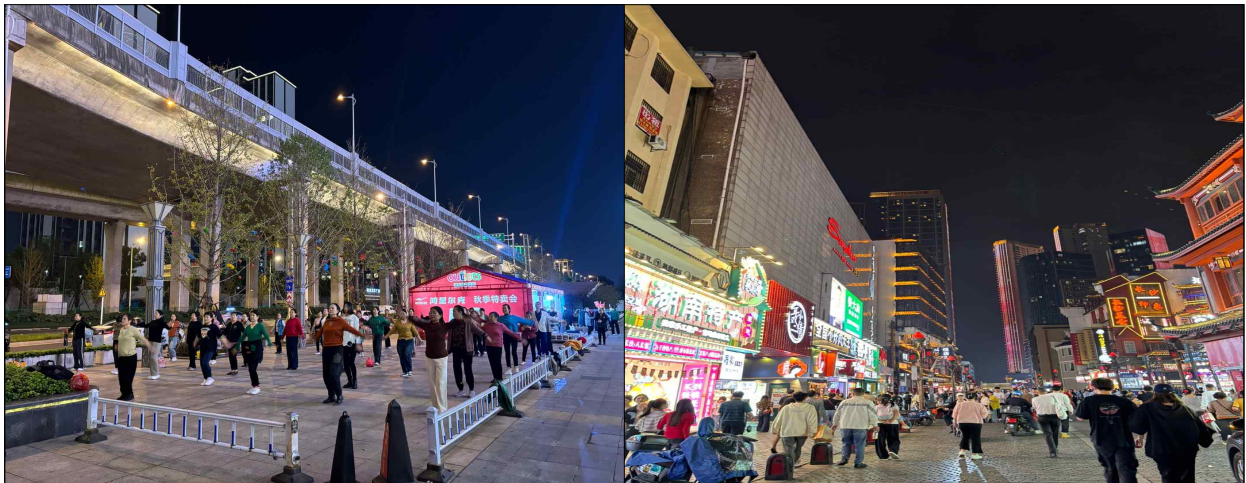
《 전기 스쿠터(QR코드) 및 헬멧 》



《 이륜차 전용차선 및 차선분리용 펜스 》



《 가로 쓰레기통 신호등 》



《 가로변 단체운동 모습 및 보행자 전경 》



《 시후루 식당(기네스북 등재) 》

4 의원별 소감

김양희 의장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중국 후난성에 속해 있는 창사시와 리링시 인민정부의 초청에서 시작된 만큼, 인민정부 관계자를 만나 우호 관계를 다지는 것이 출장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저는 서대문구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어, 두 곳의 지자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창사시와는 그동안 특별한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서로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창사시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좋은 인상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도 해봤지만, 원하는 만큼 자료가 많지는 않아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창사시 인민정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기 직전 방문했던 <창사 기획전시관>에서 이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창사 황화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전용 버스를 타고 창사시 도심으로 접어들면서 눈에 띄었던 것은 즐비한 고층 건물과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였습니다. 창사시 기획전시관에서는 2014년 개통한 고속철도가 창사시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다는 설명을 들었고, 도시가 성장하는 데 교통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오랜 기간 난항을 겪고 있는 서부선 경전철 완공되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창사시에서 방문한 차오종 거리도 기억에 남습니다. 차오종 거리 한가운데에는 랜드마크라고 할만한 벽돌 건물이 있었고, 건물 외벽에는“6500”이라고 쓰여있어서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는데 창사시 측 담당자께서 바닥에 깔린 돌의 수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바닥 돌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새롭게 이곳 거리를 조성하면서 들여온 돌이 아니라, 옛날부터 바닥에 깔려 있었던 이미 닳아버린 돌을 뒤집어서 재활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과 몇백 년이 된 오래된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에서도 차오종 거리만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고 역사와 전통에 대한 중국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창사시에서 눈여겨본 것은 공유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서울에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있는 것처럼, 창사시에는 거리 곳곳에 공유 오토바이가 있었고 이용자들이 QR코드로 오토바이를 빌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앞에 부착된 바구니에는 헬멧도 갖춰져 있고, 도로의 젤 가장자리 차선이 오토바이 전용으로 할당되어 일반 차량이 침범하지 못하게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대문구에는 언덕이 많아서 일반 자전거로는 이동하기 어려운 구간도 많습니다. 전기 자전거나 전기 스쿠터를 대여하는 공공 서비스를 도입하면 어떨지 고민해본 적이 있는데, 창사시에서 실제 사례를 만날 수 있어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창사에서 버스로 1시간이 조금 넘게 이동하여 도착한 리링시는 창사시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시였고, 이미 지난 7월에 리링시 대표단을 만난 적이

있어서인지 리링시와의 간담회는 한결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리링시 시장과 부시장, 인민대표상무회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도 반갑게 환대해 주었고 한글로 작성된 간담회 자료에서도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만남에서 서대문구의회에 방문한 리링시 대표단은 리링시가 도자기의 도시라고 소개했는데, 리링에서는 실제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 외벽부터가 깨진 도자기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도자 박물관과 도자기 업체를 방문했을 때도 생각지 못한 다양한 품목의 도자기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도자기라고 하면 항아리나 그릇 종류만 생각했는데 도자기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조명, 전력 생산에 이용되는 산업용 도자기, 술병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도자기 업체 등이 리링시의 중요한 수입원이 된다고 하니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중국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 왔지만, 우리가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만큼이나 중국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서 느끼고 배운 것을 우리 서대문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부의장입니다.

이번 중국 공무국외출장은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하여 총 4명의 의원이 함께 하며 창사시와 리링시의 주요 경제 부흥 정책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공무국외출장을 준비하며 창사시의 야간경제와 차오종 거리 등 상권 활성화 정책에 관한 자료를 사전 조사하였으며, 중국에 가서도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서대문구에 벤치마킹할만한 정책을 고민하였습니다.

2일 차에 방문한 중국 창사시 차오종 거리는 유적지 주변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여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핫 플레이스가 된 사례입니다.

차오종 거리 바닥재로 쓰이는 돌은 천년이 넘는 오래된 돌이라고 합니다. 이 돌은 오랜 시간이 흐르며 표면이 닳고 닳아 바닥재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시 바닥재를 새로 깔지 않고 기존 돌을 뒤집어서 다시 까는 공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긴 역사를 가진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하여 문화관광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기존 건물들도 최대한 보존하여 카페, 음식점 등으로 운영하며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였기에 현재 중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 있는 상권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중국이 야간경제 활성화에 나선 것은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들이 소비 주체로 부상한 데 따라 이들의 생활패턴에 맞춰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내수도 늘리고 세금도 더 걷는 일석이조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창사시는 서울과 비슷하게 도시를 관통하는 큰 강인 샹 강이 있는데 강가를 따라 조성된 야간경제 거리를 방문해보니 정말 멋진 야경과 변화한 상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리에는 외국 관광객들보다는 현지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창사시는 중국 내륙 중앙에 위치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며, 공항을 거쳐 장가계로 가는 관광객들은 창사 시내에 거의 머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멋진 창사시의 야간경제 경관이 현지인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쉬워서 이 부분을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셀링 포인트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중국 여러 대도시에서는 성공적으로 도입된 야간경제, 미디어 파사드 경관이 서대문구에 도입 가능한지는 의문이 듭니다. 신춘·이대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미디어 파사드 방식을 도입하면 좋겠지만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사유지인 건물 벽면에 LED 조명을 설치하여 여러 건물에서 일률적으로 미디어 화면을 송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미션일 것입니다.

대안으로 신춘 현대백화점이나 밀리오레 등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특정 건물로 한정하여 미디어 파사드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충분히 화려한 주변 간판 등 경관에 묻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강남구에서는 2023년 4월, “강남 미디어폴 아트스케이프”로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전인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미디어폴 아트스케이프(ARTscape)는 art(예술)와 landscape(풍경)의 합성어로,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 760m 거리에 설치된 미디어폴 18기와 대형 전광판 5기에서 송출하는 공공 미디어 아트쇼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협업해 국내 유명 아티스트의 미술작품을 디지털 이미지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올해 10월, 홍제천 야간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사천교 하부에 조명을 비추는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부디 뛰어난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야경이 조성되어 강남구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중국 당국은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심야에 운영하는 음식점, 편의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심야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런 정책은 서대문구에도 도입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서대문구는 서울시의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 도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 7월부터 무인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심야에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니, 서대문구도 자율주행 버스가 심야에도 운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일 차에 방문한 폭죽 회사와 도자기 회사를 둘러보며 든 생각은 전시장에 체험 코너가 함께 있어야 재미있고 좋은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경험 소비를 하는 요즘 세대들의 특징에 발맞춰 신촌 박스퀘어, 이화 52번가 내에 체험이 가능한 매장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창사 대한민국 임시정부·김구 박물관에 방문하여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출범하여 항저우, 창사, 광둥 등 중국의 여러 지역으로 옮겨 다니며 독립운동을 펼쳤는데, 창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37년에서 38년까지 활동한 거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소재한 자치구이기도 한데, 중국 창사에 소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김구 박물관을 둘러보며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한번 기릴 수 있었던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중국 공무국외출장의 가장 큰 성과는 창사시 인민정부대표회의 상무위원회와 리링시 인민정부 및 인민정부대표 상무위원회를 만나고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방문으로 흘려보낼 수 있었던 지난 7월 리링시 인민정부 시장의 방문이 이번 출장 지역 선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을 함께 한 총 8명의 서대문구의회 대표단의 답방을 통해 리링시와 서대문구의회가 지속적인 우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양 기관이 MOU를 공식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인적 교류 등을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세요. 서호성 의원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첫날 방문한 중국 창사시 기획전시관은 창사시의 역사를 기록 전시한 곳으로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한 도시의 과거와 현재 역사가 체계적으로 정리 보관되어 일반 시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대문구는 이 같은 공간이 없습시다만, 서울시에는 은평구 혁신파크 내에 서울기록원이 있습니다. 서울기록원은 2014년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19년 개관되어, 서울특별시 시정기록과 서울시민의 기억과 기록을 수집하며 전문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대시민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아카이브입니다. 더불어 문화 기관으로서 전시 및 열람, 다양한 시민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며 시민과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하고 미래 세대에게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서대문구에도 “마을 기록 활동가 사업”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사는 주민들이 기록의 주체가 되어 우리가 사는 서대문구 마을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모아 전시회를 여는 사업입니다. “마을 기록 활동가 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민관협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해당 사업이 단년도 사업처럼 진행되어 그간 발간한 자료집 등 성과가 연속되어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마침 올 연말에 서대문구의 공적 자료가 보관된 기록관이 이전될 예정인데, 이전할 때 구에서 제작한 각종 발간자료 등을 잘 정리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대문 기록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5일차에 방문한 리링(푸링) 도자 박물관은 리링시에서 묵었던 호텔 바로 옆 건물이었습니다.

숙박했던 호텔과 박물관 건물 형태는 모두 도자기의 유려한 곡선 모양이었으며 깨진 자기를 활용하여 외벽을 마감하여서 멀리서 건물을 바라볼 때 박물관 정체성이 한눈에 드러나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박물관 내부 전시공간 동선도 인상적이었는데 1층부터 4층까지 계단을 최소화하고 나선 형태로 이동하며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동선 설계는 교통 약자를 배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환경을 설계한 것을 말합니다.

추후 서대문구에서 주민편의시설을 건축할 때 이와 같은 설계를 참고할 수 있겠으며, 서대문구 주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각종 전시 행사를 기획할 때 리링 도자 박물관 소장품을 임대하여 전시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리링시에서는 도자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깨진 도자기 줍기 행사”를 펼치고 있는데, 해당 행사가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까지 리링시의 도자기 공장 유치를 위한 많은 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문한 도자기 업체 창고에서 하자·재고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보았으나, 이번 중국 출장 기간이 도자기 축제 기간과 겹치지 않아서, “깨진 도자기 줍기 행사”와 같은 보다 생생한 현장을 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도자기 업체와 내부 갤러리를 둘러보며 느낀 점은 대량 생산되는 생활용 자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의 수준 높은 작품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방문했던 두 개 업체 모두 도자 예술가들의 활동 무대를 넓혀주는 좋은 기업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리링시와 인적 교류가 가능하다면 연희동 등에 소재한 갤러리 및 예술가들과 리링시에 소재한 도자 갤러리 및 예술가들 간에 인적 교류도 활성화 되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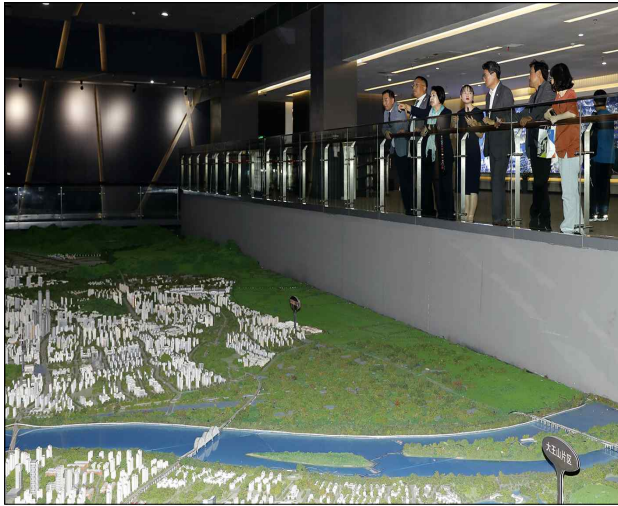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이번 중국 출장에서 가장 기대한 방문지는 창사 대한민국 임시정부·김구 박물관입니다. 최근 서대문구의 잇따른 역사 왜곡 논란을 바라보며 공직자의 역사관에 대해 고민하던 와중에,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극복하고 자주독립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이 깃든 대한민국 임시정부·김구 박물관을 방문한다니 성찰의 기회가 온 것 같아 내심 기대가 되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다.”라고 말할 만큼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위인입니다. 저는 임시정부 현장에 도착하여 내부를 돌아보는 내내 백범 김구 선생님은 어떤 굳은 의지로 이와 같은 삶을 사셨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고민 끝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명언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는 그것이 현실이냐 비현실이냐를 따지기보다, 먼저 그 일이 바른 길이냐 어긋난 길이냐를 따져서 결정한다.”

이 명언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남은 임기 동안 올바른 길을 향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중국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
에 있어, 출장 지역을 정하고 기관 섭외 등을 총괄 담당하는 대표 의원을
맡아 막중한 책임을 띄고 본 출장에 임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지역이 중국 창사시, 리링시로 정해진 것은 지난 7월 리링
시 대표단이 서대문구의회에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서대문구의회와 아무런 접점이 없었던 리링시 대표단이 의회에 방문
하여 의아하였는데, 도자기와 폭죽 산업이 발달한 리링시에 대해 알고 나
니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리링시의 발전 요인을 배우고 벤치마킹하
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서대문구의회 대표방문단이 리링시와 인근의 창사시에 방문하여 중
국의 정책을 배우고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습니
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중국 리링시와 창사시 모두 서대문구의회의 방
문 요청에 긍정적인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보안 정책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중국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 경우가 많아 방문 기관 정보
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방문 기관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와중
에 리링시와 창사시 인민정부 상무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순탄하게 출장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리링시와 창사시 관계자들은 서대문구의회 대표방문단을 환영하며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리링시 인민 정부 부시장님은 간담회 이튿날
에도 리링 도자 박물관과 폭죽·도자기 업체를 함께 둘러보며 리링시 대표

산업체 관계자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셨고, 창사시에서는 창사시 기획전시관에서 한글로 된 기관 소개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창사시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창사시 기획전시관과 리링 도자 박물관을 둘러보며 느낀 점은 지루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기관 모두 내부 시설이 최신식이었고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했는데, 벽면에 크게 설치된 액정화면을 터치하면 자연스럽게 도시 소개 화면으로 전환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박물관을 돌아보다 보면 지루할 때도 있는데, 다양한 장치를 곳곳에 두어서 지루하지 않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10년 전 창사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방문한 창사시는 10년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아파트와 높은 빌딩이 숲을 이룬 곳이었습니다. 한국이 초고속 성장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이 있을까요? 창사시가 초고속 발전을 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중국도 저출산 걱정을 하고 있지만 창사시와 리링시는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도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 도시 모두 활력이 넘치는 성장기의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사시는 중국 내륙에 위치해 있지만 1989년 황화 국제공항이 개항되었고 2014년 고속철도가 개통되어 중국 물류의 중심 도시라고 합니다.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관광객도 많아져서 도시 발전에 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창사시에 도착한 첫날 방문한 '시후루' 식당은 내부에 작은 상점 거리와 정원 그리고 야외무대가 있는 등 규모가 남달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6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식당으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곳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출장 기간 내내 거리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은 장애인 도로가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삼분의 일 정도 넓었으며, 거리 신호등이 빨간 신호, 파란 신호일 때 각각 남은 시간(초)이 숫자와 막대기로 나타나 시각적으로 한눈에 남은 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파란 신호 시간이 길어서 보행자들이 여유 있게 길을 건널 수 있는 점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따릉이 같은 공유 스쿠터가 중국 거리 곳곳에 보였는데, 공유 스쿠터 이용자들이 헬멧을 착용할 수 있도록 스쿠터 앞 바구니에 헬멧이 비치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배울 점은 더 있었습니다. 인도와 차도 사이에 자전거나 스쿠터가 다닐 수 있는 전용 차도가 있는 곳이 많았으며, 전용 차도와 일반 차도 사이에는 화단이나 튼튼해 보이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전거 운전자들이 차량으로부터 매우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최근 시청역 근처에서 발생한 역주행 참사가 생각나며 중국이 조금 부러웠습니다.

빨간 신호일 때에도 남은 시간이 표기되는 신호등 체계와 공유 스쿠터에 헬멧을 기본옵션으로 장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꼭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것이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사업인지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중국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영유아가 옆에 있어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며 중국인들의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한국 화장실에 익숙해 있다가 중국 화장실을 가보니 좌변기는 거의 없고 화변기가 대부분이어서 불편하였습니다. 현지인에게 물어보니 중국인들은 화변기보다 좌

변기를 비위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좌변기는 다른 사람들의 엉덩이가 닿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나라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문화 차이가 있었습니다.

출장 일정 중에 당초 계획에 없던 소방파출소를 방문, 소방시설과 소방관들의 훈련 모습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이점은 소방 오토바이가 있다는 점인데, 확인해본 결과 한국도 소방차가 접근하지 못하는 골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기동대 오토바이(소방 오토바이)가 출동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중국 공무국외출장 대표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띄고 본 출장에 임하였습니다. 출장을 마치며 함께한 의원들에게 물어보니 한목소리로 기대한 것보다 더 좋았다고 답하였습니다. 타국의 사례를 보며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하게 되어 좋았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출장의 가장 큰 성과는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님을 포함한 총 8인의 대표방문단이 현지에서 리링시와 창사시 인민정부와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교류 정례화 등 협력을 다짐한 것입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 간에 정식 MOU 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임기 내에 기회가 된다면 창사시와 리링시 정부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서대문구의 우수한 정책들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비롯한 관내의 많은 기관·단체를 직접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중국 창사시, 리링시와 서대문구의회 간의 활발한 교류 협력이 기대됩니다.

